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

[김상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5
----------	------

발의연월일 : 2017. 3. .

발의의원 : 김상영 의원 등 8인

1. 주문

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돌려주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주주의, 지방분권을 기본으로 한 지방자치 실시로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분권형 개헌 및 기초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을 폐지,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제로 전환,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을 중앙정부에 주문한다.

2. 제안이유

- 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25여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는 반쪽짜리 지방자치 시대에 살고 있다. 중앙 정치인들의 사고방식은 아직도 중앙집권적 권위의식으로 뭉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 나.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세원확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 및 조세 세입 중 국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방세 분배,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바라기'를 부추기고 있음

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돌려 주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주주의, 지방분권을 기본으로 한 지방자치 실시로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임

라. 이에 우리 달성군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의 결의를 다짐함

3. 결의문 : 붙임

4. 참고사항

○ 결의문 배부 : 대한민국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 각 정당대표,
전국지방자치단체의회의장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25여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는 반쪽짜리 지방자치 시대에 살고 있다.

중앙 정치인들의 사고방식은 아직도 중앙집권적 권위의식으로 뭉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세원확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 및 조세 세입 중 국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방세 분배,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바라기’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돌려주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주주의, 지방분권을 기본으로 한 지방자치 실시로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국가간 이념, 정치, 문화 등의 차이는 더 이상 갈등의 대상이 아니며,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가 한 나라의 경쟁력이 되는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지방보다는 중앙, 다양성보다는 획일적 사고방식을 강요하고 있으며, 무늬만 지방자치인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확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더 나아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을 위해,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융성하는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이며, 현재를 살고 있는 ‘국민의 임무’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달성군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을 요구한다.

2017년 3월 23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발 의 자 서 명 부

의 원 명	서 명	날 인
김 상 영	김 상 영	
하 용 하	하 용 하	
하 중 환	하 중 환	
구 자 학	구 자 학	
채 명 지	채 명 지	
김 성 택	김 성 택	
엄 윤 탁	엄 윤 탁	
신 영 희	신 영 희	

